

시론



강 동 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
총연대 뇌건강치과 시연구소 대표

도토리야 꿈은 무엇일까? 맛있는 도토리
묵이 아니라 산새 노래를 들으며 거대한 참
나무가 되는 것이다. 작은 존재가 자신의 잠
재력을 온전히 펼쳐내려는 이 원초적 꿈이야
말로 개인을 넘어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위
대한 힘이다.

인류의 역사는 두 거대한 꿈이 빚어낸 장대
한 서사다. 질서와 이성을 추구하는 ‘아폴론’
의 꿈과 창조적 파괴와 감성을 갈망하는 ‘디
오니소스’의 꿈. 철학자 니체는 그리스 비극
에서 발견한 것처럼 진정한 예술적 창조는 두
힘의 창조적 긴장에서 탄생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21세기 문명은 아폴론의 길을 너무
멀리 걸어왔다. AI와 빅데이터로 세계를 분
석하고 완벽한 효율을 추구하며 SNS 속에서
개별화된 자아를 연출한다. 그 결과 우리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이면에는
고독으로 인한 불안, 분열과 갈등, 그리고
공허함이 깊어져 ‘몸의 지혜’를 일깨우는 디
오니소스적 치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전통미학과 K-cult
ure를 결합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가 전 세계의 고독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품은 아폴론의 과잉에 신음하는 현대
문명에게 디오니소스적 사랑과 지혜를 보여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IX

-고독한 뇌를 치유하는 사랑의 노래(2) ‘K팝 데몬 헌터스’

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교훈
서다.

작품의 주인공들은 K팝 아이돌이라는 현
대 아폴론적 질서의 완벽한 상징이다. 한 치
오차 없는 군무와 ‘우리는 황금빛이 될 거야
(Gonna be golden)’라는 외침은 역경 속에서
도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우리의 이상적
자화상이다.

뇌과학적으로 전전두피질이 감정의 뇌인
변연계를 억누르는 ‘하향식 통제’로 인해, 화
려함 뒤에는 트라우마로 얼룩진 고독한 내면
이 존재한다. 이는 마치 각자의 악기가 조율
되지 않은 채 불협화음을 내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것이 아폴론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현대의 비극
이다.

이 억압의 사슬을 끊는 것은 논리가 아닌
디오니소스적 축제, 즉 음악과 춤, 노래의 리
듬이다. 상처를 고백하며 교감하는 절규의
노래(‘Free’)는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 자유로워져’
라는 후렴구를 통해 함께 자유를 찾아가는
환희를 보인다. 이 순간 뇌에서는 이성의 강
압적 통제가 풀리고 몸의 감각이 뇌를 지배
하는 ‘상향식 해방’이 일어난다. 강렬한 비트
는 심장을 뛰게 하고, 화려한 안무는 거울 뉴
런을 통해 전율을 일으키며, 함께 노래할 때
뇌파와 심박은 동기화된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치유받는다.

작품의 마지막 곡 ‘What It Sounds Like’는
이 불협화음의 오케스트라가 마침내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순간이다. 깨진
유리 조각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봐,

‘상처는 나의 일부, 아픔과 조화’라는 가사는
아폴론적 완벽함의 허상을 버리고, 자신의
상처와 불완전함이라는 디오니소스적 혼돈
을 끌어안을 때 진정한 ‘나’라는 위대한 예술
이 탄생함을 선언한다.

이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위대한 화해
이며, ‘오케스트라’가 사랑을 연주하는 가장
 눈부신 피날레다. 바로 이 순간, 서로를 향한
공감은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따뜻한
화음으로, 상처 극복의 화염은 엔도르핀의 영
혼을 울리는 선율로, ‘함께’라는 새로운 목표
는 도파민의 힘찬 파파르로, 그리고 ‘나는 혼
자가 아니다’라는 깊은 안정감은 세로토닌의
목직한 울림으로 터져 나온다. 이것이 바로
신체와 정서를 통합하는 치유의 리듬이다.

진정한 치유의 모습을 보인 ‘K팝 데몬 헌
터스’의 통찰은 ‘뇌건강 치과학’이 추구하는
최종 비전과 일치한다. 우리는 정교한 치료
를 통해 무너진 구강의 구조적 안정성, 즉 ‘아
폴론적 질서’를 튼튼하게 세운다. 이는 오케
스트라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 안정된 토대 위에서 환자가 편안하
게 쉼과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말하며, 자유
롭게 웃고, 마음껏 노래하며, 사랑하며, 삶이
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디오니소스적 역
동성’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해방시킨다.

차가운 이성의 시대에 잃어버린 몸의 지혜
와 따뜻한 공동체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인류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교향곡. 그리고 그 교향곡의 첫 음을 연주할
수 있도록 구강악안면, ‘입’이라는 무대를 복
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치과의
사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소명이 아닐까.

社說

시간 많지않은 여순사건 국가 배상절차 박차 가해야

최근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
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에서 126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24명이 승소
한 바 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한을 품고 견뎌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폭력
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남도
는 환영했다.

올해로 77주년이다. 반백년을 훌쩍 넘겨 고통
화가 심각한 유족에 대한 배·보상 지급 논의
를 서둘러야 하는 때다. 전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열
악한 지방 재정상 도내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한
계가 뚜렷할 수 밖에 없다. 유족으로 인용된 타
시·도 거주자 60% 정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2022년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
879건에 이른다. 중앙위원회는 1·2차 접수 7천46
5건 가운데 50.6% 3천776건에 대한 심사만 완료
한 상황이다. 조사 완료는 2026년 10월5일로 예
정돼 있다.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 합동추

념식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
S)를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배·보상의 근거가 될 진상
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돼야 한다. 보고서는 조
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인 2027년 4월4일까지
발간해야 한다. 제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희생
자만 정부가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
정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부 및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다. 진정한 위로와 화해, 국
민 통합을 위해서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규
명, 배상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에 속도를 내
야 한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의 경우 2022년 첫 국가보상이 이뤄졌다.
당시 생존을 위해 타지 및 해외로 떠난 피해자와
유족까지 포함시켰다. 전남도가 파악한 도내 생
활보조비 수급 대상 1천여명 중 80대가 절반 이
상이고, 나머지도 7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 법정 기한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범정부 합동대응 캄보디아 범죄 지역사회도 총력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2023년 17건에서 지난
해 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
로 크게 늘었다. 우리 정부의 합동대응팀은 현지
이민 당국의 단속에 구금된 인원 등 64명을 국내
로 송환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사기, 감금 피해가 급증한 일부 지
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하고 그 외에는 경보를
상향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남 광양에서는 40대 남성이라는 형을 만나 취
업하러 간다고 한 뒤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광
주에선 30대가 지난해 9월 출국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모르는 번
호로 전화가 와 희미하게 ‘살려달라’고 말하고
끊겼다는 진술도 있었다. 광주와 여수 등에서 신
변이 확인된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실종자 구조 요청 방법
및 대사관 연락처·주소 등 안내사항을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탐문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선배의 소개로 간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최근에 ‘고수의 해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불미스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종자의 안전이
최우선일 것이다. 가용한 자원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 국민 보호가 국가의 존재 이유다.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수단을 투입해야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이면서 피의자일 수 있다. 범죄단지에 갇혀있는
한국인을 귀국시켜 빨라르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쉽게 근절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보이
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사기의 심각성을 재인식
하고 뿌리 뽑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적과
국경을 넘어섰다.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모습이
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경찰도 동향을 파악하
는 등 사태 해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치칼럼



이 계 앙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육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순서
로 차별 인사를 드렸다. 이제 장모님 한 분이
연로하신 채 스스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그
에 따라 갖가지 돌봄이 절실한 과제가 됐다.

부모님의 한가위 보름달 같은 자식 돌봄으
로 여기까지 살아온 여러 자식들의 그림달
같은 부모 돌봄은 장모님 한 분의 의식주 생
활을 원활하게 하는데 턱없이 빈약하기만 하
다. 여러 자식들이 타향에 살고 있어 그런지
몹으로 타인이 된 듯하다. 각자의 생활과 사
정을 고려하면 더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당장
돌봄을 기다리는 장모님 앞에 서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다름없다. 과연 돌봄
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하
는가.

성장과 효율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질서
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는 소외와 배제, 기아와 전쟁, 분쟁과
소요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다. 가정이
라는 단위에서부터 타인이 돼 사회나 국가
단위로 나아가면 온 세상이 만인과 투쟁하는
곳으로 확장된다. 급기야 개인과 사회는 정
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공동체는 위기를
넘어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장인 돌아가신 후 지난 17년 동안 장모님은
늘상 “나는 혼자서도 잘살고 있다. 걱정하지

아름다운 타인, 돌봄공동체

말라”고 하며 돌봄을 스스로 짐 지며 자식들
을 타인으로 살도록 했다. 장모님은 자신의
세계 인식의 한계로 혼자 잘 사는 것으로 착
각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새삼 “누군를 혼자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밥 한 톨, 물 한 그릇, 반찬 한 가지, 부엌살림,
집, 침대, 이불, 옷, 세탁기, 진료, 주사, 약, 보
험, 전기, 쓰레기, 가로등 등등 도처에 혼자일
수 없는 것들로 빼곡하다. 아니 전부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나’들은
입으로는 ‘사회적 존재’임을 말하면서도 생
활 속에서는 각자도생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
는 ‘이기적, 개인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 ‘너’, ‘그’가 돼 공동체
로부터 우리, 분리되고 있다.

병원 진료와 회복을 위해 도시에 사는 사
위(필자) 집에 얼마간 머무르다가 장모님이
원하던 시골집에 모셔다드셨다. 그리고 더
자주 장모님을 찾아뵙면서 당신 입으로 ‘혼
자서도 잘살고 있다’는 말씀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던 것을 알게 됐다. 자식들의 그림
달 같은 돌봄도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이, 마을 지인들의 과일, 반찬, 음료 등의
문병이, 친불친 이웃들의 안부와 위로 전화
가 보름달처럼 밝게 비추며 잇따르고 있었
다. 장모님은 아름다운 타인들의 돌봄이 있
는 곳에서 아름다운 타인으로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에 찬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기적 타인들 중 한 명인 필자로서는
‘아름다운 타인’들끼리 ‘혼자’ 사는 연대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섬섬을 몰랐던 것이
부끄럽다. 나야가 노쇠해진 장모님을 통해
돌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타자화된 타인인 자녀들의 부모 돌봄으로

가족공동체가 균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때
에 부모 아닌 이들의 돌봄은 어떠할지? 상상
하기조차 싫다. 장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을 그토록 꺼리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
기에 있지 않을까.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타
인들이 돌보는 요양원들도 많으려면 주위의
노인네들이 한사코 요양원 입소를 경계하는
것을 종종 보았다.

그런데 장모님 고향마을을 지인들의 과일,
반찬, 음료 방문과 안부와 위로 문병 전화가
보름달처럼 밝게 이심전심 위안, 음악, 시가
돼 장모님을 구원하고 있었다. 구원이 마을
안에 있었다. 마을에 있는 타인들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돌봄공동체로 승화해 새로운 가
치와 세상을 만들고 있어 희망을 걸게 된다.

프랑스 실존주의자 장 폴 사르트르는 ‘타
인은 지옥이다’고 했다. 그렇다. 현대사회는
지옥을 향해 치닫는 설국열차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각축장에서 타인이 지옥이다. 그런
데 그 타인들이 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돌봄
의 방법으로 장모님을 구원하고 있다.

폴란드 시인 아담 자가에프스키는 ‘타인들
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
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들
에게만 구원이 있다/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
하다 해도/ 타인들은 지옥이 아니다/ 꿈으로
깨끗이 씻긴 아침/ 그들의 이마를 바라보면/
나와 왜 어떤 단어를 쓸지 고민하는 것일까/
너는 왜 어떤 단어로 할지/ 모든 그는 어떤
너의 배신자일 뿐인데, 그러나 그 대신/ 서늘
한 대화가 충실히 기다리고 있는 건/ 타인의
시에서 뿐이다.’(시집 <타인만이 우리를 구
원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늘상 “나는 혼자서도 잘살고 있다. 걱정하지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
기계 운행이 늘면서 호남
지역에서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
하고 있다.

호남 지역은 산간과 구
릉지대가 많고, 농로가 국도와 직접 연결된
구간이 많고 이로 인해 속도가 빠른 차량과
저속 농기계가 같은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가을철 농기계 사고 주의보

일이 잦다. 좁은 커브길이나 시야가 확보되
지 않는 곳에서는 추돌이나 측면 충돌 사고
가 자주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운전자의 기본 안전수
칙 준수를 강조한다. 야간 운행 시 반드시 등
화장지치를 켜고 차량 후미에 반사지나 경광등
을 부착해 시인성을 높여야 하며 도로 진입

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적재물은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주간에 이동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대부분 순간의 방심에
서 비롯된다. 작은 안전수칙이라도 지키면
소중한 생명과 가을의 결실을 함께 지킬 수
있다.

<전유람·장흥경찰서>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작시(作詩)

안천덕



바위에 구멍 뚫어
맛줄 꿇기

어리석은 자는 물 가운데서도
목이 마르듯

시흥(詩興)을 다루기가
콧구멍 없는 사람이다
(시집 ‘갈대숲 속삭임’, 도서출판 아세아, 2013)

[시의 논]

어린날 나무에 올라본 경험에 있을 것이다. 애당초 가능성은 믿고 선했 오르겠거니 도전했다가 더 이상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설치 않았던 어설피고 선부터 도전 말이다. 호기롭게 덩벼들여 나무를 뒹가지만 중간쯤 매달려 위를 쳐다보면 두렵고, 아래를 내려
다 보면 어질러머리가 빙빙 돌던 어질한 심리적경험을, ‘작시’가 그렇다. 문학을 꿈꾸며 늦깎이에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모
국어와 고투하는 화자의 치열한 몸부림이 상상된다. 오죽하면 시 쓰기 작업을 ‘바위에 구멍 뚫어 /맛줄 꿇기’라고 고백하고 있을
까. 필약한 형식의 시 창작, 그게 무슨 대수겠냐고 호기롭게 덩벼들었다가 원통 울가미에 걸려든 자신을 어쩌지 못하고 후회하고
성찰하고 있질않는가. 그만큼 시쓰기는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노동이 틀림없음을. 시를 써 본 사람이라면 익히 피
부로 느끼어는 일.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데는 단 하나의 단어만 적합하다 했던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이 성취되는 지점이기
도 하다. 마땅한 시어 하나를 얻기 위해, 거듭 읽어봐도 양이 차지 않은 시적 욕망을 때문에 잠을 설치고 좌절하고 넘어져야 하는
일이 창작이라는 것을, 자기반영의 메타시 ‘작시’가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부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지10(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